광주 초등 2014년 전면 무상 급식

시교육청 발표, 광역 지자체 중 처음 실시

올 126억 들여 1·2학년…年 1개 학년 확대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들이 2014년부터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2010년 예산 운용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매년 1개 학년씩 추가해 2014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 급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3만 5천여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26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2년에는 4학년, 2013년에는 5학년, 2014년에는 6학년으로 무상 급식이 확대된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매년 36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일부 농산어촌 지역에서 초등학생 전체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광역단위에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없다.

시 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과 함께 12만 3천여명에 이르는 전체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1인당 연간 3만 5천원이 지원되며, 총 예산 규모는 41억원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평균 지원액보다 1인당 1만 5천원이 높다.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학생용 학습자료 중 기본 학용품인 연필, 공책, 지우개 등을 제외한 물품이다.

따라서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은 올해부터 도화지와 색종이 등은 물론 삼각자를 비롯한 기본 학습준비물에서부터 리코더와 같은 개인악기까지 무상으로 제공돼 학부모 알림장에서도 학습 준비물 목록은 사라지게 된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도 지난해 651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했던 냉·난방기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 〈본보 2009년 10월 19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올해 학급당 10만~25만원까지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운용 계획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산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시 교육청 장문수 예산팀장은 "올해 예산 운용의 주요 방향으로 일선 학교의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늘위 호텔' 굴욕

A380 기체결함 이륙 못해

'하늘의 특급호텔'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A380기가 기체결함으로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55분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두바이행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EK323Y 항공편이 연료탱크 부분에 결함이 발견돼 갑작스럽게 출발을 하지 못했다. A380기가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취항한 이후 기체에서 결함이 발견돼 이륙하지 못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승객 420여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으며,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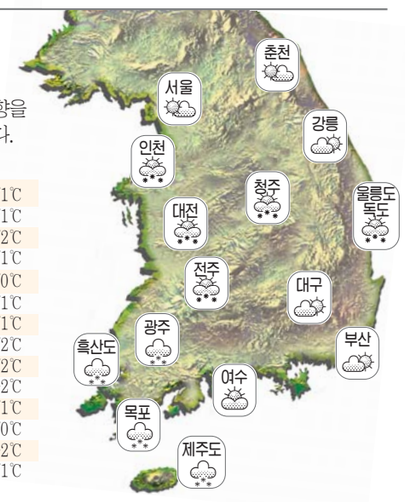
A380기는 전체 517석의 좌석을 갖춘 초대형 항공기로, 전세계에서 모두 20대만 존재하는 최고급 여객기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40분 달뜸 05시 14분 달짐 14시 54분

풍랑주의보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눈	-3/1℃
목 포	흐리고 눈	-2/1℃
여 수	구름많음	-2/2℃
완 도	흐리고 눈	-2/1℃
구 례	흐리고 눈	-5/0℃
해 남	흐리고 눈	-2/1℃
장 흥	흐리고 눈	-2/1℃
고 흥	구름많음	-3/2℃
순 천	구름많음	-2/2℃
영 광	흐리고 눈	-4/-2℃
진 도	흐리고 눈	-2/1℃
전 주	흐리고 눈	-5/0℃
남 원	흐리고 눈	-7/-2℃
흑산도	흐리고 눈	0/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12:41 --:--	05:04 18:06
여수	07:50 19:28	00:51 13: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 씨						
최저/최고	-6/-1	-7/2	-3/5	-4/6	-4/6	-3/7

전남 농업인 고교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월 말까지 신청 받아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을 상대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생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인 경우가 지원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40억원으로, 도내 고교생 1만4천명에게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정책추진 '보통'

교과부 평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1차 상시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도 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우수(별 5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별 3개를 받아 '보통' 수준의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그동안 연간 1차례만 평가했던 시·도 교육청 운영 실적을 올해부터 연중 2~3회의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1차 평가는 지난해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실적 등 현 정부의 1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과 추진일정(로드맵)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산출됐으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추진 실적은 3월 말 실시될 2차 상시평가와 4월 3차 최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1차 평가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한 것이었으며, 2차와 3차는 학생들의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타 시·도에 비해 성적이 우수했던 만큼 4월 최종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민들이 만드는 볏짚 공예품 11일 함평군 엄다면 정양마을 노인정에서 주민들이 볏짚으로 바구니, 방석, 멍석 등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볏짚 공예품들은 지역축제 등에 출품·전시되고, 판매돼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지역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방송통신대 광주·전남 대학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 13일까지

직장인, 주부, 만학도 등 학업 시기를 놓친 이들에게 40여년간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온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이하 방송통신대)이 2010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통신대는 "13일까지 2010학년도 정시 모집을 하고, 오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010학년도 모집 인원은 편입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6만1천386명이며, 무시험 전형이다. 신입생은 고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편입생은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10%는 연장자 특별전형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한다.

방송통신대의 가장 큰 장점은 TV나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 강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대학과 목포, 여수, 해남, 순천지역에 시·군학습관을 운영해 직장인이나 만학도, 주부 등 학교 다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원격교육 서비스도 제공해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은 35만~39만원으로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사이버대학의 5분의1 수준이다.

강경선 방송통신대 광주·전남지역대학 학장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물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졸업생들이 국가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72년 개교한 방송통신대는 그동안 43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의 꽃' 총경 승진

광주 권영만·강칠원씨

전남 김학남·이유진씨

경찰청은 17일 광주지방경찰청 권영만 홍보계장과 전남지방경찰청 김학남 인사계장 등 총 74명을 '경찰의 꽃'인 총경으로 승진 임용했다.

광주경찰청은 권 계장과 함께 강칠원 강력계장이, 전남경찰청은 김 계장과 이유진 교통안전계장 등 모두 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광주청 권 계장과 전남청 김 계장은 경찰대 3기, 광주청 강 계장과 전남청 이 계장은 각각 간부후보 출신 38기와 33기다.

당초 이번 총경 인사에서는 광주·전남 승진자가 3명 가량 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모두 15명의 승진 대상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점을 감안해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